

강원교육으로 종지 구현 될까?

한국불교학회 '한국불교교육...' 학술대회를 문제제기

“교과와 종학의 이원화와 교섭관 석을 통한 강원교육 체계정비가 시급하다.”

“정보통신기기 등을 적극 활용해 재가자의 삶에 깊이 스며드는 불교 교육이 필요하다.”

4월 29일 한국불교학회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한국불교학회(회장 이병래) 제42회 춘계학술대회. ‘한국 불교 교육 체계의 재검토’를 주제로 한 이번 대회에서는 출·재가불자 교육과정의 변화가 없는 한국 불교가 도태되고 말 것이라는 강한 위기감이 느껴졌다.

첫 발표자로 나선 권오민 경성대 교수(원주교구)는 먼저 ‘사미·사집·사교·대교 과정으로 이뤄진 현행의 강원교육과정의 조계종 종지를 구현할 인재 양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이처럼 말하는 이유는 교과과정이 선종중심으로 짜여 있으면서도 핵심이 될 만한 경론은 제외돼 있는가 하면, 포함된 교과목들은 난이도나 교섭관석 측면에서 일정한 관계성이 결여돼 있는 등 정체성이 모호하고 체계를 없기 때문이다.

해능의 <육조단경>, 달마의 <이입사행론> <능가경> 등이 과정에 포함돼 있지 않고, ‘초기불교-아비달마불교-대승공관-유식-여래장’

으로 이어지는 불교사 가운데 여태 장 앞의 불교는 교과과정에서 배제돼 있다. 4성제·8정도·3법인·12연기 등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내용 또한 다루지지 않고 있다.

권 교수는 강원을 마치고 동국대 불교대학에 진학하는 제도의 문제점도 비판했다. 강원에서 대교까지 배우고 난 다음에 불교대학에 입학해 불교학개론을 배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이와 관련하여 권 교수는 강원도의 4년 과정을 교학(2년)과 종학(2년)으로 분리할 것을 주장했다.

재가자교육문제를 논한 김성철 동국대 교수(불교학)는 “불교도가 불교적 신념체계가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고 진단하며 “자신의 종교를 불교라 말하는 1000만 불자를 진정한 불자로 교육해내는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기독교의 창조론과 섭리론에 대응하는 불교의 세계관을 개발하고, ‘내생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오계를 부분적으로 지키기’ 등의 현실성 있는 목표를 불교신행의 목표로 삼는 한편, 연령에 따른 차별화된 대기설법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박익순 기자 info@buddhapia.com



4월25일 송광사에서 봉행된 조계종 제25회 단일계단에서는 467명이 구족계를 받았다.

“도업 이루기에 목숨 바치리”

조계종 467명 구족계

새 조계종 스님 467명이 탄생했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법장)은 지난 4월 25일 순천 송광사에 금강계단을 세우고 제25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식을 봉행했다.

전계회상 보성 스님, 교수아사리 종진 스님, 갈마 아사리 성우 스님과 성수, 고산, 혜정, 정관, 등각, 철우, 무관 스님 등 7중사가 증명한 이날 수계식에서 비구 254명, 비구니 213명이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 인원은 1981년 해인사에서 단일계단이 처음

을 설치된 이래 사상 최대이다. 수계산립 회향식에서 전계회상 보성 스님(송광사 방장은 법어를 통해 ‘화합과 참고 견디는 수행의 힘을 길러 온전한 도업을 이루는 일에 목숨 바칠 것’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법장 스님도 “부처님 계법에 따라 한 치의 어긋남 없는 정진으로 무상정등각을 성취하고 인연의 스승이 돼 달라”고 격려했다.

송광사=이준엽 기자

세계 누구와도 통하는 사이트

조계종 국제 사이트 쌍방향 시스템 구축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4월 28일 국제사이트 설명회를 갖고 전세계 외국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조계종 및 한국불교에 대한 정보들에 손쉽게 접근하고 질의답변을 받을 수 있는 쌍방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1월 1일 정식오픈을 예정하고 있는 국제사이트의 컨셉은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수행 자유 행복’

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의 3개 사이트로 구축된다.

카테고리는 △한국불교 조계종 △사이버 선 수행 △한국의 선사 △사찰과 수행 △수행일지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사이버 선 수행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플래시와 동영상 활용에 참신법을 지도하게 된다.

김지연 기자

근대문화재 분과위 신설

문화재청 위원도 위촉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4월 25일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전임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 위촉된 문화재위원은 9개 분과 109명, 전문위원 195명으로 각각 24명, 22명 증원됐다.

증원 사유에 대해 문화재청은 “등록문화재의 전문적인 조사 및 심의를 담당할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가 신설(14명 위촉)됐고, 경론 있는 원

료학자를 중심으로 국보지정분과위원을 별도로 위촉(10명 위촉)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신설된 근대문화재분과위원은 근대문화유산의 등록문화재 심의를 전담하게 된다.

불교문화재 전문가로는 현고 스님(조계종 총무원장법장, 범하 스님(통도사성보박물관·불교회화), 장충식 교수(동국대·불교조각), 정우택 교수(동국대·불교회화), 김리나 교수(홍익대·불교조각) 등이 포함됐다. 문화재위원 임기는 2005년 4월 26일부터 2007년 4월 25일까지 2년이다.

박익순 기자

올 한중일대회 10월 부산에서

종단협 이사회 결의

올해 한중일대회가 10월 24-26일 부산에서 열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는 4월 28일 이사회를 열고, 한중일대회를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원래 3월 14일 열린 한중일대회 예비회의에서 경주로 결정됐으나, 부산시가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차원에서 대대적인 물량지원을 약속, 장소를 변경

했다. 부산시는 행사장과 김해공항까지 셔틀버스 운행, 공항내 안내데스크 설치, 3국 대표스님 의정차량 제공, 문화예술행사 및 부산시 문화회관 지원, 시장 만한 개최등을 약속했다.

또 종단소개책자는 5월중 인쇄 출판하고, 각 종단에서 거출한 쓰나미성금 1억원은 낙산사 산불피해 복구 지원에 전달하기로 했다.

김원우 기자

수덕사 종회의원

정목 스님 당선

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는 4월 26일 제13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단독출마한 정목 스님을 선출했다.

정목 스님은 1968년 수덕사에서 출가해 76·79년 수덕사에서 사미계와 구족계를 각각 수계했다. 1983년부터 정각원·서천사·해인정사 주지와 1993년 수덕사 재무국장을 지낸 후 1998년 제12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선분사 주지를 맡고 있다.

한영우 기자

조계종 조사국장 지용

감찰 관행·서호 스님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새 조사국장에 지용, 상임감찰에 관행·서호 스님이 4월 26일자로 임명됐다.

지용 스님은 1984년 도학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용인 보덕사 주지, 소적새마을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서호 스님은 해오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호법부 조사과장을 역임했다.

한편 같은 날 서울 개운사 주지에 종법(중앙승가대 총장), 호법특별보에 진원 스님(부안 내소사 주지)이 임명됐다.

남동우 기자

진각종 새 집행부 구성...문사부장 이행정 전수



총무 수석장사



재무 증정장사



포교 회장장사



문사 이행정전수



교법 무위원장사



교육 경당장사

진각종 신임 총무원장 회장 정사는 4월 29일 총무원장 취임식에서 수석(서울 해원심인당 주교·전 재무부장) 정사를 임명하는 등 총무원·교육원 각부 부장 및 국장인사를 단행했다.

총무원장 회장 정사는 이날 재무부장에 증광(대구 경산심인당 주교), 포교부장에 회성(대구 불정심인당 주교·전 문화사회부장), 교육원 교법부장 무의(서울 무예심인당 주교·전 포교부장), 교육부장 겸 진각

대학 교무처장에 경당(대구 시경심인당 주교·전 진각대학 교무처장) 정사를 각각 임명했다. 문화사회부장에 이행정(경주 상석심인당 주교) 전수를 각각 선임했다.

김원우 기자

역사문화기념관

‘의혹’ 형사고발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 공사건이 김모씨에 의해 4월 7일 형사고발됐다. 이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4월 27일 불교계 기자들과 오찬에 앞서 “원장 취임 후 높아졌던 종단 위상이 최근 발생한 종단 관련 문제 때문에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영담 스님은 4월 28일 조계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 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 이후 공사비 과다계상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유철주 기자

일불선교종, 재단에 승소

(재)일불선교종(총무원장 동봉)과

일불선교종(총무원장 법철)이 벌여 영담 스님은 4월 28일 조계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 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 이후 공사비 과다계상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신 기자

우리 시대 참 스승이 들려주는 공감의 지혜

달라이 라마의 공감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돌멩이 하나, 꽃 한 송이에서부터 하늘을 나는 새와 같은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따로 떨어져 홀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물며 인간들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결국 세상과 내가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는 것이 공감입니다. _달라이 라마

달라이 라마는 인간에 대한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가치들을 위해 헌신해온 분이다. 그는 평화와 정의, 그리고 인생을 인생답게 만드는 모든 것을 위해 자신의 힘을 다하셨다. _벨스 만델라, 노벨평화상 수상자

www.jakka.co.kr 작각정신

화제의 신간

김희상 옮김
해리저타스 출판
김희상 옮김